

월간양계 30년사, 이런일 저런일 30선(選)

월간양계가 양계업 태동기인 지난 1969년 11월 창간된 이래 통권 361호를 발행하면서 30년간 양계인들의 눈과 귀가 되어 많은 정보들을 양계인들에게 제공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월간양계 창간 30년을 맞이하여 월간양계를 통해 실렸던 수 많은 내용들 중 기억될만한 에피소드나 실화를 묶어 '월간양계 30년사, 이런일 저런일 30선'을 엄선하여 선별, 게재하였다. 본 기사에 실린 내용 이외에도 IMF 위기, 계열업체 부도시대 등 양계산업에 기억될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으나 지면관계상 부득이 30개만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월간양계에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편집자주 -

월간양계 탄생

월간양계가 1969년 11월 1일 (사)한국가금협회(회장, 발행인 오봉국)에서 첫호가 발행되었다. 당시 오준석 농림부 축산과장이 창간사를 집필하였으며 본문은 48페이지 광고는 단색 20, 원색 6페이지로 발간되었고 월간양계 제호는 7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서울대 윤석봉 박사가 쓴 휘호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 계의연구지 필화사건

한국인 J씨(농촌연구가)가 일본에서 발행하는 '계의연구지'에 '한국양계의 현상'이라는 글을 기고하였는데 내용이 너무 사실과 동떨어져 업계의 분노를 샀으며 월간양계에서도 그 잡지사에 정식 항의를 하여 사과문과 함께 올바른 양계의 현황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왔다.(70.12)

계란등급 제정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선린 생산자 협동조합에서는 1970년 8월 18일부터 출하되는 계란의 규격을 특란 61g 이상, 대란 55~61g, 중란 47~55g, 소란 42~47g, 경란 42g 미만으로 정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국내 최초의 계란등급이며 그 이후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에서는 1974년 2월 6일 회의를 갖고 그동안 사용해오던 계란등급제도를 조정하는데 합의를 보았는데 이는 특란 60g 이상, 대란 54g~60g미만, 중란 47g 이상~54g미만, 소란 42g 이상~47g미만, 경란 42g미만으로 현재까지 사용되어지고 있다.(70.10, 74.3)

둘레 25cm의 초대형 계란 발견

1973년 보통계란의 4배인 둘레 25.3cm 무게 202g의 계란이 부산시 부산진구 초량동 이승준씨 농장에서 발견되었다. 이를 깨어보니 완전히 굳은 계란이 나왔으며 난황도 2개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73.4)

대한양계협회 창립

1973년 한국가금협회와 한국부화협회, 한국초생추감별협회가 양계산업 발전과 단체의 병립으로 인한 사업의 중복과 불필요한 경비 및 시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각 단체별로 해산식을 갖고 4월 26일 오후 5시 여성회관에서 대한양계협회 창립총회를 갖고 6월 14일 설립허가를 받아 정식 출범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농림부차관보, 축산국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회장에는 김재춘(전한국가금협회 회장, 국회의원)씨가 추대되었으며 부회장은 오세정(건대축대) 교수와 이필용(소신중계장), 윤경중(서울부화장)씨가 선출되었다.(73.4)

연탄과동으로 양계농가 어려움 초래

1970년대 이후 당시에는 대부분의 양계장에서 연료를 연탄으로 사용하였는데 1974년초에는 전국적으로 연탄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육추에 필요한 연탄의 부족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양계협회와 농림수산부(현 농림부)는 상공부에 긴급협조를 의뢰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8월 정부에서는 연탄구매카드제를 마련하고 사업용 연탄을 황색카드로 표시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무제한 공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런 조치로 연탄공급이 호전되면서 병아리 주문양이 늘어나는 현상도 초래하였다.(74.1)

세계 계란 콘테스트 출품

1974년 7월 27일 미국 메인주 피츠필드에서 세계 계란 콘테스트가 개최되었는데 국내에서는 대구에 있는 신성부화장이 한국을 대표로 출품하였다. 신선도와 크기는 타국에 비해 월등하였으나 계통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선에도 오르지 못했다.(74.9)

서울시 주택가에 가축사육금지령

주변환경이 불결해져 전염병의 온상이 되기 쉽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10km 이내에서는 절대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단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시험연구 등 공공 목적의 사육장은 제외되었다. 이를 계기로 서울에서 경기도 일원으로 축산업의 이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74.10)

후라이드 치킨 서울 상륙

한국켄터키하우스(주)(대표 권승주)에서는 미국의 켄터키후라이드치킨사와 상담을 마치고 통닭구이용 기계를 수입, 종로구 서린동에 1975년 10월 15일 개관식을 가지면서 국내 처음으로 후라이드치킨을 선보였다. 그러나 점포를 개점해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간 때는 1984년도로 국내식품업체인 한양식품이 미국 휴블라인과 기술제휴로 서울 종로 2가 경영빌딩에 켄터키후라이드치킨 점포를 처음 개점함으로써 정통 미국식 치킨의 맛을 즐기게 되었다. 당시 켄터키후라이드치킨은 세계 6천개의 체인점을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에서만도 1983년 40억불의 판매고를 올렸다.(75.5, 84.12)

홍콩과 사우디아라비아에 계란 수출

1981년초 국내 계란값이 하락, 9천만개의 재고가 쌓이자 이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싼 가격에 홍콩과 사우디 아라비아에 81만개의 계란을 수출하였다. 이는 각종 마스크에서 오르내리면서 큰 화제가 되었으며 그 결과 20일 동안 대란값이 개당 13원까지 인상되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제계란가격 동향을 파악하게된 점이 큰 수확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그 이후 다시 계란값이 하락하자 7월 24일부터 다시 수출이 재개되어 1백8십만개를 수출한 바 있으며 8월부터 연말까지 홍콩과 중동에 2,000만개를 수출하였는데 당시 수출가격은 29원으로 개당 15원씩 밀지며 판매해 실질적인 소득은 없었다.(81.5, 81.8)

간이계사 철거령

경기도 일원에 보온덮개 간이계사에 대해 농지불법선용으로 농토가 잠식된다는 이유를 들어 강제 철거령이 내려졌다. 1983년 당시 육계는 80%, 산란계는 30% 정도의 계사가 간이계사에서 사육되고 있는 상태에서 철거가 강행될 경우 수급차질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우려의 소리가 높았다.

이로인해 일부 약품업소에서는 간이계사는 외상 사절이라고 써붙인 곳도 있었으며, 사료공장의 외상값 독촉도 대단하여 양축가들이 불안에 떨기도 하였다.(83.7)

동원참치 왜곡광고에 항의 빗발

본회를 비롯해 양돈, 낙농육우 등 3개업체는 1984년 5월 20일자 격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중앙일보사 발행)와 5월 24일자 주간매경(매일경제신문사 발

행)에 가축의 고기(동물성 단백질)를 먹으면 마치 명만큼 살지 못한다는 내용(약주고 병주는 가축의 고기)을 게재한 동원참치사에 강력한 항의와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동원참치사는 6월 18일자로 월간양계 7월호에 사과문을 게재하였으며 방송매체에 계란, 닭요리 프로를 방영키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기도 하는 등 이로인한 소비부진으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다.(84.6, 84.7)

달걀에 항생물질 잔류 논란

1984년 11월 16일자 경향신문 사회면 기사 '계란에 항생물질 잔류' 게재에 대해 본회와 생산자 대표가 항의한 결과 경향신문사에서는 해명 기사를 통해 달걀에 항생제 잔류조사 결과 잔류물질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내용을 실었다. 이후 양계산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빈번히 마스크의 취재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84.12)

올림픽 식품에 닭고기도 선정

정부는 86, 88올림픽에 대비해 한식 75, 일식 19, 중국식 43, 양식 81, 편의식 31종의 올림픽식품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한식중에 삼계탕, 닭갈국수, 닭튀김, 인삼닭튀김 등 닭고기 제품도 지정되었다.(86.2)

닭고기, 계란수입 결사반대 시위, TV 생방송

본회는 1988년 2월 9일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경기 지역 양계업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닭고기, 계란수입 결사반대', '30만 양계인의 생존권을 보호하

라, '안보적 차원에서 축산물 수입개방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는데 MBC, KBS TV에서는 시위광경을 전국에 생방송으로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88.3)

KBS-1TV '이상구 박사의 새로운 출발' 방영 관련, 강력 항의

KBS-1TV는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이상구 박사의 새로운 출발'을 황금시간대에 방영, 축산물 소비를 위촉시키는 발언으로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옴에 따라 본회를 비롯한 축산관련 9개단체가 즉각 항의를 하는 등 대책에 나섰다. 이상구 박사는 1989년 2월 16, 17일에 방영된 '이상구 박사의 새로운 출발'에서 동물성 식품은 덮어놓고 건강에 나쁜 것이고 채식만이 좋다는 주장을 내세웠는데 이에대해 본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들은 한국방송공사에 '이상구 박사의 프로그 방영될 시 이는 이상구 박사의 개인 의견이며 이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사전통보하여 소비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 줄것과 적어도 4회 이상 이상구 박사의 프로그 방영된 동일 시간대에서 영양학자들의 좌담회를 통해 이상구 박사 발언중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는 조치사항을 항의서를 통해 전달했다.(89.3)

축산업계 대표 대통령과의 첫 면담

본회 정태원 회장을 비롯한 축산인 40여명은 6월 14일 청와대에 오찬을 하면서 현안문제에 대해 면담을 했다.

축산업계에서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을 만나 현안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로

과도기적 입장에 있는 축산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데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었다.

양계업계에서는 본회 정태원 회장, 한순 부회장, 신흥중 부회장, 장민기 부회장, 이계조, 차두홍 자문위원과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 강희구 조합장이 참석하였다.(89.7)

법정전염병인 뉴캐슬병 판명 산란계 1천수 매몰 처분

1989년 12월 22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법정전염병인 뉴캐슬병이 진성으로 판명되어 산란계 1천수가 살처분 명령을 받아 매몰처분 되었다. 이후 1994년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닭을 대량 매몰시키는 사건이 있었으며, 가금티푸스 발생 등 양계질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90.1)

직립식 자동화 계사 1호 탄생

충남 연기군 남면에 위치한 금강농장(대표 이양익)이 독일 빅더치만 직립식 케이지를 설치하면서 국내 첫 자동화 계사를 선보였다. 이 계사는 총 210평에 2만수의 닭을 수용할 수 있으며 당시 평당 건축비는 1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90.7)

초생추 감별사 해외 파견 러시

1990년 본회가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초생추 감별사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24개국에 총 263명이 파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22명으로 가장 많고 서독 23명, 캐나다 22명, 오스트리아 14명, 헝가리 11명, 영국

10명, 스페인 9명을 비롯해 터키, 노르웨이, 볼리비아, 스위스 벨기에, 나이지리아, 도미니카, 이란, 홍콩, 우르과이, 덴마크, 이스라엘, 프랑스 등 세계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0.6)

암탉 1마리, 계란 7개에 40만원 부당이득혐의 영장

1990년 경북 영양에서는 토종닭을 훔친 10대의 부모로부터 과다한 보상금을 받아낸 닭주인이 부당이득 혐의로 구속되었다. 영장을 받은 집주인은 집에서 기르는 암탉 1마리와 닭이 품고 있던 계란 7개를 10대 아이가 훔쳐 달아나는 것을 붙잡아 40만원을 받아냈다.

영장신청 이유는 토종닭과 계란값 33,500원과 닭장 파손비 5만원 등 피해액 83,500원 보다 너무 많은 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다.(90.8)

한국양계박람회 개최

본회가 주최한 '91 한국양계박람회가 1991년 10월 10~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울올림픽 공원내 제2체육관(펜싱), 제3체육관(역도)에서 참관객 3만2백명이 다녀간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축산업종 생산자들이 주축이 되어 박람회를 개최하기는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며 국내외 기자재 업체 77여개사에서 100여종의 제품을 전시하였으며 가금류전시, 가금류알 전시, 병아리부화과정 전시, 정책홍보 전시, 홍보포스터 전시행사가 있었고, 소비홍보를 위해 전국닭고기 요리솜씨대회 제7회 본선대회가 열렸고 우수양계인 선발, 양계인 대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병행되었다.

이후 2년마다 열린 1993년(2회), 1995년(3회),

1997년(4회) 대회는 각각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금년도(1999년)에는 같은장소에서 '99한국국제축산박람회로 명칭을 바꿔 개최된다.(91.10)

양계시범사육단지 조성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평택에 대규모 양계시범사육단지가 조성되었다. 그동안 토지관계법과 주민반발에 부딪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수입개방에 대비 축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축산시설 부지난 해소와 전업축산농가 시범육성, 사양관리 공동체계 구축을 목표로 총 사업비 28억5천8백만원을 책정, '92년 10월에 단지조성을 끝낼 계획으로 사업에 들어갔으며 그 이후 우후죽순격으로 양계단지가 설립되면서 과잉생산, 질병확산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켰다.(92.1)

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및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1992년 본회를 비롯한 축산관련 6개 단체는 5월 21일 축협중앙회 강당에서 축산관련인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범국민 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명의식)를 공식 출범시키고 백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본회도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축산물수입개방저지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지부분회와 함께 서명운동을 벌여 본회에서만 1만 2천913명의서명을 받은 바 있으며 6월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실시한 축산물 수입개방 저지대회에 참가 '수입개방 절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92.6, 92.7)

46년만의 극적인 상봉

1993년 6월 11~12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던 대한양계협회 임직원 수련 및 단합대회에서 포천분회 신재환씨가 43년만에 고종사촌 김중권씨(전남지부)를 만나 회포를 풀었다.

이들은 철원지역에서 지내다 6·25한국전쟁 발발시 헤어졌는데 양계업의 인연으로 새로운 만남을 맞게 되었다.(93.7)

5마리 닭이 1일 최고 77개까지 산란

충북 증원군 동량면에서 5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는 박모씨의 닭 사육장에서 하루에 최고 77개의 알을 낳아 화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당시 닭들의 항문주위에는 잦은 산란으로 몹시 충혈되어 있고 산란상자에 두 마리의 닭이 산란본능을 참지못해 알을 낳고 있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실었다. 그러나 이는 차후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해프닝으로 끝났다.(94.3)

닭고기 수입권 최초공매

UR협상의 일괄타결로 최소시장 접근방식에 따라 3월 9일과 28일 축산물유통사업단에서 닭고기 수입권 공매가 처음으로 이루어져 양계인들을 긴장시켰다.

7,700톤중 1차공매시 3,000톤, 2차시에 4,700톤을 각각 공매하여 절단육 전량 낙찰, 미절단은 일부가 유찰되었다.(95.4)

닭고기 우수성 홍보 '자동차타기 현상퀴즈'

본회는 육계산업 및 관련업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도키 위해 1995년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동아일보 등 7개 일간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닭고기 우수성을 알리는 광고와 함께 '자동차타기 현상퀴즈 찬치'를 실시하였다.

12월 5일 추첨을 통해 김현정씨(대구)가 승용차를 타는 영광을 차지하였다.(95.12)

시중 유통닭 살모넬라감염 보도 파문

농진청수의과학연구소가 자체 조사한 시중 유통 닭의 살모넬라 감염 결과가 1996년 10월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가 됨으로써 장기간 불황에 시달려온 육계농가를 곤경에 몰아넣었다.

이에대해 농림부는 축산국의 공식 해명과 수의학연구소의 책임자 문책, 공식 사과 등으로 일단락 되었다.(96.11)

중추, 노계 악덕유통업자 '딱지어음' 부도사기 사건

중추와 노계유통이 늘어나면서 1998년에는 악덕 유통업자들이 양계장을 대상으로 전국을 돌면서 일명 '딱지어음'을 이용해 고의로 부도를 내는 방식으로 사양가들에게 큰 피해를 준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 제보자(Y씨)에 의해 밝혀진 이 사건은 피해액만도 2억1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의자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다니며 부드러운 말과 온화한 얼굴로 순진한 양축농가를 현혹시킬 정도로 화술이 능하고 범망을 교묘히 피해다니며 피해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8.11) **양계**